

다윗-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다

Kingdom Life

오늘의 말씀 : 사무엘하 1:1~18

묵상할 말씀 :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14절).

찬송 : 286장(통 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기도 : 말은이



마음 열기

당신이 존중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나 일상의 태도를 지니고 있나요?



말씀 듣기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은 후, 한 사람이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했고,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에 집중하며 경청합시다.

—배경설명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저녁때까지 슬퍼하고 금식한다(11-12절). 그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처형한다(14-16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자기 원수로 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울이 여호와와 기름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대신에, 오히려 조가를 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향한 마땅한 자세를 백성들과 후세대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다. 다윗이 조가를 지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왕조 교체의 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적대 관계였지만, 사울을 존귀한 자로 기리는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사울 지파(베냐민 지파)의 반감을 최소화하고,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다.

—도움말

- 슬픈 노래(17절, 히: 키나):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탄식의 노래로,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시와 구별된다.
- 조상하고(17절): 애가를 부르다, 탄식하다, 슬피 노래하다.
- 유다 족속(18절): 사울 왕은 베냐민 족속이었고, 다윗은 유다 족속이었다.
- 활 노래(18절): ‘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윗이 지은 조가의 제목이나 제목의 일부로 이해한다.
- 야살의 책(18절): ‘야살’은 똑바른, 옳은, 의인 등의 뜻이며, 오늘 본문과 여호수아 10:12-13에 등장하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알 수 없다.
- 가드, 아스글론(20절): 아스돗, 가사, 에글론과 함께 블레셋 다섯 성읍에 속한 도시이다.



말씀 깨닫기

1.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맨 먼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1-12절)

- 다윗은 자기를 수없이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14-16절 참조)

-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2.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려준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3-16절)

- 다윗은 자기의 정적을 제거했다고 말하는 그 청년을 왜 그렇게 엄하게 다루었을까요?

- 아말렉 청년처럼 잘못된 선택이나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그때 무엇을 느꼈나요?

3.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어떻게 애도했습니까?(17-18절)

- 다윗이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배경 설명 참조)

-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진심 어린 애도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말씀 살기

1.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한 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2. 우리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